백제문화권 개발과 관광충남

여 정 태
(余廷泰)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Ⅰ. 들어서는 글
Ⅱ. 역사문화관광의 개념과 관광상품개발
Ⅲ. 백제문화권 관광자원의 현황 및 문제점
Ⅳ. 백제문화권의 관광개발 기본방향과 개발방안
Ⅴ. 나가는 글

Ⅰ. 들어서는 글

역사문화자원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또한 내외국인이 찾고 방문하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된다. 따라서 역사문화자원은 자연환경자원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자원에 내재된 의미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역사문화자원은 그 대상이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일단 훼손이 되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개발하는데는 원형 훼손과 고유성의 파괴를 방지하고 전통문화가 지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순히 문화재의 보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방문에 의한 지역경제의 증대, 연결도로망의 정비, 지역기반시설의 확충에 의한 지역개발의 효과가 기대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자원 분포지로는 수도권,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중원문화권 등이 있는데, 이 중 신라문화권과 백제문화권의 관광개발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신라문화권은 경주를 중심으로 경주보문단지, 감포관광단지 등을 거점으로 활발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백제문화권도 역사문화관광지로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

획에 의해 백제역사촌, 백제역사연구교육촌, 탄천 관광농업단지, 공주문화관광단지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정부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1년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특정지역으로 지정, 1994년에 문화유적 정비복원, 관광자원개발, 도시기반시설 및 도로교통망 확충, 계룡지구 개발 등 5개 분야 55개 사업을 확정하여 2001년까지 사업비 1조 5000천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여홍기, 1996).

이러한 백제문화권 개발은 이미 1978년부터 거론되어 왔던 것이나 여러 차례의 지역적인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가시적 결과가 빈약하였다. 또한, 현재에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투자예산의 대부분이 지방비와 민자를 유치토록 계획되어 있고, 국비 투입계획이 전체의 18%에 불과하여 계획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사문화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수반하게 된다. 첫째로 백제문화자원은 공주, 부여, 연기, 청양, 예산, 홍성, 익산, 서울 등에 광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이들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자원으로서는 관광가치를 충분히 높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연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문화자원의 고증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등을 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고증을 거쳐 정비 또는 복원, 재현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백제문화권은 그 동안의 발굴 문화재는 많으나 신라문화권과 비교하여 널리 알려진 대규모의 문화재가 부족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발굴 복원하고, 정비·재현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는 역사문화자원과 관광개발를 연계한 매력창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단순 관람형태로 이루어졌던 역사문화 관광활동은 앞으로 요구되어지는 참여형 관광행태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상품 및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매력을 창출을 하고, 많은 잠재 관광객들의 수요를 유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투자재원의 확보문제이다.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사업화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재원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자유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계획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온 추진내용을 검토분석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I. 역사문화 관광의 개념과 관광상품 개발

1. 역사문화관광의 개념

세계관광기구(WTO)의 연구논문에서는 "문화관광이란 협의로는 연구여행(탐구여행), 예술문화여행, 축제 및 기타 문화행사 참여, 유적지 및 기

넘비 방문, 자연·민속·예술 여행연구, 성지순례 등 본질적으로 문화적 동기에 의한 인간들의 이동이고, 광의의 문화관광은 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경험·만남을 증가시키는 등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정의에서 볼 때 문화관광이란 결국 타국이나 타 지역의 생활양식이나 전통적 행동양식에 접하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이상과 같은 문화관광의 다양한 정의를 통하여 정리할 수 있는 역사문화 관광의 개념은 "특정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방식 중 오랜 과거로부터 이루어져 온 역사성이 강한 문화자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광개발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역내 분포되어 있는 유형·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상품화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의 형태는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대상지역을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문화 관광개발은 전자의 형태이며,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신라문화권의 경주 보문단지와 현재 개발을 추진중에 있는 백제문화권의 백제역사재현단지 등이 있다.

2. 역사문화 관광의 가치와 관광상품의 개발

역사문화 관광은 중요한 관광산업 중의 하나로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역사문화 관광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역과 도시들이 역사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도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역사문화 관광시장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확대되고 있다.

역사문화 관광의 개발이 갖는 가치와 의의는, 첫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문화와 예술은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준다. 셋째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예술을 진흥시킨다. 역사문화 관광은 다양한 형태로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을 발굴·육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역사문화 관광을 발전시키도록 지역의 역사문화와 예술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로 역사문화 관광의 대상이 되는 역사문화자원이 관광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역사문화 관광이 갖추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문화 관광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자원, 예컨대 문화축제 및 이벤트 기획, 참신한 공연 및 전

시, 지역의 문화환경 조성, 전통문화상품의 전시 및 판매, 전통생활문화, 무대화된 고유성(staged anthenticity) 등을 통하여 관광매력을 창출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화 하려는 역사문화 관광의 수요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사문화 관광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 욕구와 동기, 역사문화 관광객의 사회경제적 특성, 역사문화 관광 행태 등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역사문화 관광수요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관광마케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내 및 해설체계, 홍보 및 광고, 정보네트워크, 저렴한 가격, 친절한 관광서비스 체계 등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역사문화 관광은 역사문화자원만으로는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데 한계가 있으며, 숙박, 음식, 교통, 쇼핑, 오락, 인접 관광시설 등이 갖추어 있을 때 관광객 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전국관광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는 역사문화 관광상품의 주요 구성요소로 자연자원, 문화자원, 관광시설, 서비스, 교통수단시설, 관광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의 기본방향은 관광지의 성격과 기능, 관광객의 관광행태와 수요를 고려하여 목적별 코스 상품의 개발, 지역의 향토성, 역사성을 고려하여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관광상품의 개발, 고유한 민속행사를 활성화시켜 매력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전환하여 전통문화의 계승과 관광사업의 발전 도모, 민예품, 토산품 등 지역특산물 중 상품가치가 있고 개발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 고급화·다양화 하여 관광객의 기호에 적합하도록 개발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상품은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문화 관광상품의 개발은 관광객에게 유구한 민족문화의 전통과 역사의 현장을 관광시킴으로써 조상의 얼과 정신을 체득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역사문화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민족자원의 적극적인 발굴·보존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외국과는 역사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국가간의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고 우수한 민족문화의 세계화를 시도할 수 있다.

〈표 1〉 역사문화 관광상품의 분류

구 분	관 광 상 품 내 용
장소적 관광상품	① 코스상품, ② 박물관, ③ 문화관, ④ 전통 고유마을, ⑤ 전원생활 체험촌
행사적 관광상품	① 민속행사, ② 민속놀이, ③ 운동경기, ④ 전람회 등 행사
기념적 관광상품	① 민예품, ② 토산품 등 기념품

자료 : 한국관광공사, 전국관광 장기종합개발계획, 1989.

Ⅲ. 백제문화권 관광자원 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1. 백제문화권 역사문화 관광자원 현황 및 이용 행태

가. 충남의 역사문화자원 현황

충남지역에는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사 유적유물이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제시대의 유적·유물은 당시 수도인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많은 유적·유물이 산재해 있다.

1997년 1월 현재 충남지방에 소재해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총 172점으로 국보 24점, 보물 77점, 사적 34점, 사적 및 명승 1점, 천연기념물 12점, 중요무형문화재 6점, 중요민속자료 18점 등이다. 또도 지정 문화재는 총 249점인데 유형문화재 126점, 기념물 92점, 무형문화재 19점, 민속자료 12점 등이다. 문화재 자료는 총 313점인데 유형문화재 271점, 기념물 40점, 민속자료 2점 등이다.

〈표 2〉 충남도내 시군별 지정문화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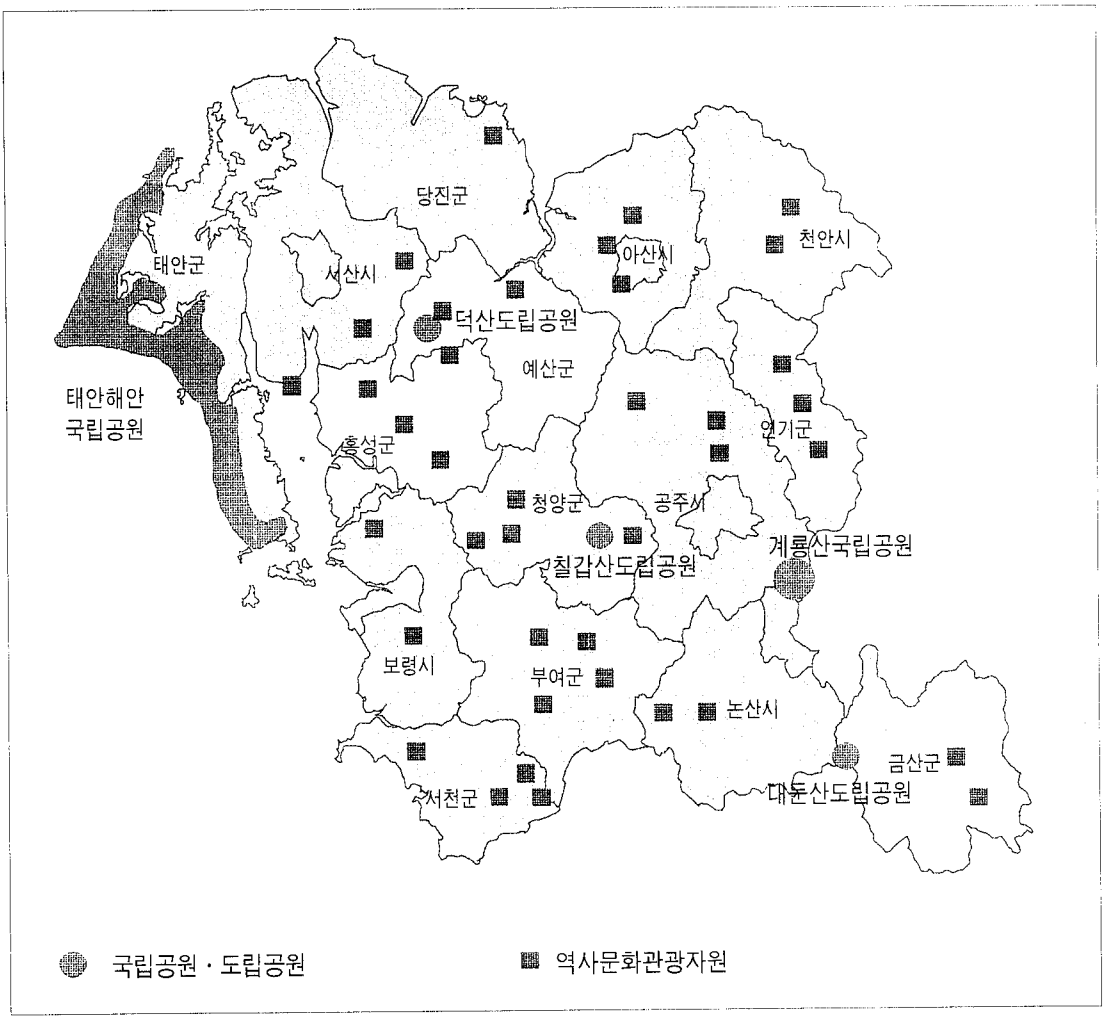
구 분	합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국가지정 문화재	172	8	33	7	12	11	11	-	4	3	37	8	9	7	11	3	8
도지정 문화재	249	8	49	11	10	10	34	2	8	7	45	9	6	14	19	10	7
도지정문화재자료	313	29	31	17	25	20	30	4	21	10	37	15	12	17	30	5	10
합 계	734	45	113	35	47	41	75	6	33	20	119	32	27	38	60	18	25
비 율 (%)	100.0	6.1	15.4	4.8	6.4	5.6	10.2	0.8	4.5	2.7	16.2	4.4	3.7	5.2	8.2	2.5	3.4

자료 : 충청남도, 문화재 목록, 1997.

지역별로 문화재의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백제문화의 중심지인 부여군이 116점으로 가장 많고, 공주시도 113점을 차지한다. 논산, 예산, 아산, 천안, 서산이 각각 40점 이상이며, 홍성, 보령, 금산, 서천에도 30점 이상이 있어 충남 전역에 결쳐 산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역사문화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이미지」의 구축과 몇 개의 관광거점 조성 및 체계적 연계성의 도모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충남의 향토문화축제는 1970년 이전까지는 백제문화제를 제외하면 동화제, 풍어제 등 마을단위의 원시적인 축제로 지속되어 오다가 1980년대에 들어 15개 축제가 새롭게 등장하여 전 시군이 1개의 대표적 축제를 갖게 되었다. 1995년에 조사된 충남의 향토문화축제는 모두 22개였다.

이들 축제의 개최시기는 주로 봄과 가을에 집중



〈그림 1〉 충남지역 역사문화 관광자원 현황도

되어 있으며, 축제를 성격별로 분류해 보면 제례 축제 5건, 특산물을 홍보하는 축제 8건, 특정인물 추모 3건, 지역명 홍보 3건, 기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행사내용은 주로 주민화합 도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축제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축제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표 3〉 도내 시군별 향토축제 현황

시 군	행 사 명	주최 · 주관	개최시기 (1995년)	재원총액 (천원)	최초개최연도 (개최주기)	행사내용 요약
천안시	봉화제	병천면청년회의소	2.28		1979 (매년)	3·1절 기념
	입장거봉포도축제	입장청년회의소	9월말		1993 (매년)	거봉포도홍보 및 주민화합도모
	삼거리문화제	천안시문화예술 선양위원회	10. 8~10. 11	100,000	1987 (매년)	삼거리 역사성 재현 및 시민화합 도모
공주시	동학사봄꽃축제	동학사봄꽃축제 추진위원회	4. 13~4. 19	50,000	1991 (매년)	산신제 노래자랑 등 10종목
	백제문화제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	10. 8~10. 11	280,000	1955 (격년)	백제문화 계승발전 부여와 윤번개최
보령시	대천해변제	대천해변제 추진위원회	6. 30~7. 1	38,000	1992 (매년)	대천해수욕장 개장 기념축하
	만세보령제	만세보령제 추진위원회	9. 30~10. 1 (95년 미실시)	113,000	1988 (매년)	풍어 · 풍년 기원
아산시	온양·아산문화제	온양·아산문화제 추진위원회	4. 28~4. 29	169,000	1961 (매년)	이충무공 탄신 기념 및 시민화합단결
	서라예술제	예총아산지부	10. 1		1988 (매년)	
서산시	서산문화제	서산문화제 추진위원회	10월	30,000	1990 (매년)	서산아가씨 선발대회 등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연산백중놀이 전승보존회	8. 11 (음7. 15)	19,701	1989 (매년)	전통적인 백중놀이 재현
	놀뫼향토제	놀뫼향토문화제 집행위원회	9. 30~10. 1 (95년 미실시)	102,000	1986 (매년)	딸기홍보 및 군민화합 도모
금산군	금산인삼제	금산문화원	9. 21~9. 23	200,000	1981 (매년)	금산 인삼홍보 및 주민화합 도모

시 군	행 사 명	주최·주관	개최시기 (1995년)	재원총액 (천원)	최초개최연도 (개최주기)	행사내용 요약
연기군	도원문화제	도원문화제 추진위원회	4. 21~4. 23	34,740	1985 (매년)	복사꽃 아가씨 선발 등 복숭아 홍보 및 민속전승
부여군	은산별신제	은산별신제보존회	2. 13~2. 17	17,620	1947 (매년)	마을의 안녕을 기원 주요 무형문화제 제9호
	가림성충혼제	임천면번영회	4. 29~4. 30			백제말 성흥산성에서 당군과 싸우다 전사한 무명장졸의 넋을 추모
서천군	저산문화제	서천군	5월 (95년 미실시)	51,940	1989	모시아가씨 선발 등을 통한 한산모시 홍보
청양군	칠갑문화제	칠갑문화제 추진위원회	9. 30~10. 1	48,000	1984 (격년)	구기자홍보 및 군민 화합 도모
홍성군	만해제	홍성문화원	8. 15	56,300	1995	시낭송 백일장 등
예산군	매헌문화제	월진회	4. 28~4. 29	63,000	1974 (매년)	윤봉길의사 기념행사 민속경연대회 등
당진군	기지시줄다리기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3. 28~3. 31		(윤년, 매년)	윤년마다 줄다리기 실시, 평년에는 민속 예술 행사
	상록문화제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	9. 27~9. 29		1977 (매년)	심훈선생 추모

주 : 1) 공주시의 백제문화제는 부여군과 윤번으로 개최.
2) 이 표는 충청남도의 문화체육과에서 자체 조사하여 작성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재원총액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지표 조사연구, 1995에 의함.

나. 충남의 역사문화자원 관광개발 현황

충남의 1997년 현재 지정관광지는 총 20개소이며, 이 중 역사문화 관광지로는 부여 구두래, 천안 태조산, 공주 곰나루, 천안 각원사, 공주 마곡사, 공주 공주문화관광지 등 6개소가 있다.

역사문화 관광코스로는 일정별 관광코스와 관광권역별 관광코스가 있다. 특히, 일정별 관광코스는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모두 연계되어 이루어 지고 있다(〈표-5〉참조). 또한 공주, 부여, 논산을 중심으로 하는 시간별 백제문화권 관광코스는 〈표-6〉과 같다. 이들 일정별 관광코스와 관광권역별 관

광코스에서는 관광자원이 있는 지역을 이동이 가능한 시간별로 연계를 하고 있을 뿐, 자원특성이 가지고 있는 상호간의 연계성이나 방문객의 방문목적은 거의 고려치 않고 있다. 또한 관광객의 유형이나 이용교통편은 관광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이를 반영한 관광코스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백제문화권 관광코스의 개발은 이러한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4〉 지정 관광지중 역사문화 관광지 현황

관광지명	위치	관광지 지정		주요 개발내용
		지정일	면적(㎡)	
구드래	부여 구교	69. 1. 21	148,515	가족휴양 중심 관광지
곰나루	공주 웅진	87. 7. 24	139,000	가족휴양 중심 관광지
태조산	천안 유량	85. 7. 24	331,000	청소년 수련시설
각원사	천안 안서	90. 4. 19	82,294	가족휴양 중심 관광지
마곡사	공주 사곡	93. 11. 9	126,000	가족휴양 중심 관광지
공주문화	공주웅진·봉저·검상	96. 10. 24	1,330,000	백제문화 중심 관광지

자료 : 충청남도, 도정백서, 1997.

〈표 5〉 일정별 충남 관광코스 현황

관광코스 유형		관광코스
한나절 코스	국립공원	대전-계룡산(동학사)-대전
	인삼	대전-금산(인삼타운)-대전
당일 코스	백제문화	천안(대전)-공주(백제문화유적)-부여(백제문화유적)-천안(대전)
	성역	천안(대전)-독립기념관-태조산대좌불-현충사-삽교호-온양민속박물관-천안(대전)
	EXPO기념관	천안-대전EXPO기념관-유성온천-계룡산(동학사)-천안
1박 2일 코스	백제문화	천안(대전)-계룡산(동학사)-공주(백제문화유적)-(부여숙박)-부여(백제문화유적)-무량사-화장골계곡-성주사지-대천해수욕장-천안(대전)
	성역·휴양	천안(대전)-독립기념관-태조산대좌불-현충사-삽교호-온양민속박물관-신정호-(온양 또는 도고숙박)-추사고택-충의사-수덕사-덕산오천-천안(대전)
	서해안	천안(대전)-계룡산(동학사)-공주(백제문화유적)-(부여숙박)-부여(백제문화유적)-무량사-화장골계곡-성주사지-대천해수욕장-천안(대전)

관광코스 유형		관 광 코 스
1박 2일 코 스	EXPO기념관	천안-독립기념관-대전(EXPO기념관 유성온천)-공주(숙박)-마곡사-온양(온천)-신정호-현충사-천안
2박3일 코 스	1 코 스	천안(대전)-공주(백제문화유적)-부여(백제문화유적)-(부여숙박)-한산모시타운-금강하구둑-무창포해수욕장-남포방조제-대천해수욕장-수덕사-충의사-(도고온천숙박)-신정호-온양민속박물관-현충사-태조산대좌불-천안(대전)
	2 코 스	천안(대전)-독립기념관-유관순사우-태조산대좌불-현충사-온양민속박물관-신정호-(온양숙박)-삽교호-대호방조제-대산공단-마애삼존불-해미읍성-수덕사-충의사-(덕산온천숙박)-칠갑산-공주(백제문화유적)-논산관촉사-천안(대전)
	3 코 스	대전-논산관촉사-부여(백제문화유적)-계룡산(갑사)-공주(백제문화유적)-(공주숙박)-마곡사-외암민속보존마을-온양민속박물관-현충사-삽교호-신정호-(온양숙박)-독립기념관-금산인삼타운-칠백의총-서대산-대전
	4 코 스	천안-삽교호-대호방조제-대산공단-태안해안국립공원-(서산숙박)-해미읍성-마애삼존불-대천(무창포)-(부여숙박)-대전(EXPO기념관 유성온천)-천안

자료 : 충청남도, 도정백서, 1997.

〈표 6〉 시간별 백제문화권 관광코스 현황

시 간 별	관 광 코 스
1 시 간 코 스	공주터미널-(5분)-무령왕릉(30분)-(5분)-공산성(30분)-(5분)-공주터미널
	부여터미널-(5분)-궁남지(20분)-(5분)-정림사지(15분)-(5분)-낙화암,구드레(15분)-(5분)-부여터미널
	논산터미널-(5분)-관촉사(30분)-(5분)-탑정저수지(20분)-(10분)-논산터미널
2 시 간 코 스	공주터미널-(5분)-무령왕릉(30분)-(5분)-곰나루관광지(20분)-(5분)-공산성(30분)-(5분)-국립공주박물관(30분)-(5분)-공주터미널
	부여터미널-(5분)-부여박물관(60분)-(5분)-능산리고분군(40분)-(5분)-부여터미널
	논산터미널-(5분)-관촉사(30분)-(20분)-계백장군전적지(20분)-(10분)-돈암서원(20분)-(15분)-논산터미널
3 시 간 코 스	논산터미널-(5분)-관촉사(30분)-(20분)-계백장군전적지(20분)-(10분)-돈암서원(20분)-(15분)-논산터미널

시 간 별	관 광 코 스
3 시 간 코 스	부여터미널-(5분)-부여박물관(120분)-(10분)-낙화암(10분)-(20분 · 유람선)-구드레(20분)-(5분)-부여터미널
	논산터미널-(5분)-관촉사(30분)-(35분)-대둔산(60분)-(40분)-논산터미널

자료 : 충청남도, 도정백서, 1997.

다. 백제문화권 방문 관광객수 및 관광행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지역간 소득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관광수용태도의 개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행상품의 개발 등으로 대량 국내여행시대를 예고하면서 국민여가행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문화유적 답사여행, 생태 · 환경여행을 통하여 우리 전통문화 및 자연환경을 발

〈표 7〉 공주 부여권 관광객 방문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공 주 부 여 권(A)			충 청 남 도(B)	
	관 광 객 수	비 율(A/B)	증 가 율	관 광 객 수	증 가 율
1982	6,516	50.8	-	12,831	-
1983	6,941	53.9	6.5	12,877	0.4
1984	7,156	43.6	3.1	16,400	27.4
1985	7,779	56.4	8.7	13,789	-18.9
1986	9,202	51.2	18.3	17,965	30.3
1987	12,994	65.7	41.2	19,769	10.0
1988	15,398	55.4	23.1	28,865	46.0
1989	14,824	48.4	-7.3	30,634	6.1
1990	14,290	48.8	-3.6	29,274	-4.4
1991	13,271	44.0	-7.1	30,170	3.1
1992	14,150	42.3	6.6	31,272	3.7
1993	13,713	44.6	-3.1	30,773	-7.6
1994	14,326	42.4	4.5	33,789	9.8
평 균	-	49.8	7.6	-	9.3

자료 : 충청남도, 공주 · 부여권 관광개발기본계획, 1996.

굴·보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여행문화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1994년 충남의 관광객 총수는 33,789천명이고, 공주·부여권은 14,326천명으로 충남의 42.4%가 방문하고 있으나, 관광객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충남 전체가 9.3%인 반면 공주·부여권은 7.6%에 그쳐 상대적으로 역사문화권 방문관광객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또한, 1991년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타당성 조사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공주·부여 관광객은 1,140천인으로 경주 방문객의 21%수준이며, 관광객 체재율은 공주 10%, 부여가 30%에 그치고 있어 경유형 관광행태를 보이고 있다. 방문형태는 단체관광 위주로 청소년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외국관광객은 일본의 수학여행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계절별로는 봄에 가장 많고 가을, 여름, 겨울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주·부여권의 관광행태 유형별 활동비를 과거의 추세와 향후 예측치를 검토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역사문화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역사문화 관광지의 방문객은 외국인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공주·부여권은 역사문화 중심의 관광활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방문 관광객수의 추이를 보면 1988년 서울올림픽까지는 급격한 증가를 하다가 이후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역사문화 관광을 지향하는 국민관광성향에 비해 백제문화권 관광의 수용형태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백제문화권 관광개발계획 현황

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백제문화권에 대한 정부의 개발계획은 백제문화유적의 보존·정비 이외에 방문 관광객의 유치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문화·관광시설의 설치를

〈표 8〉 공주·부여권 관광활동 구성비

(단위 : %)

구분		1991년	1994년	1996년	2001년
자원유형	관광행태				
산악형	감상 및 탐방형	12.8	12.6	12.4	11.5
	위락 및 휴양형	1.0	1.2	1.5	1.6
내륙형	역사문화형	39.8	40.1	40.7	40.4
	도시관광형	3.9	4.3	4.8	6.0
	관광 및 휴양형	35.1	34.5	33.4	32.8
내수면형	수변 및 호반관광형	7.4	7.3	7.2	7.7

자료 : 충청남도, 공주·부여권 관광개발기본계획, 1996.

포함하고 있다. 곰나루 일대에 계획된 공주문화관광단지와 부여 규암면의 백제역사촌 조성 등이 그것이다. 공주문화관광단지의 경우 위락·휴양기능을 중심으로한 단지조성이 예정되어 있고, 부여는 백제문화의 여러 내용을 재현하는 '역사재현촌'과 문화계승을 뒷받침하는 '연구교육촌'으로 구성하게 된다. 공주와 부여에서의 이같은 대규모 단지는 '백제 큰길'로 연결하고 그 사이에 관광농업단지(공주 탄천면 분강리), 노인 휴양촌(공주 이인면 운암리), 청소년 수련촌(공주 정안면 내문리), 오토 캠프촌(공주 탄천면 견동리), 기업 연수촌(공주 탄천면 대학리), 금강 뱃길 조성 등을 '종합개발사업'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관광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같은

〈표 9〉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사업계획 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위 치	사업비(백만원) (92~96년)	재원조달 방법
역사유적 발굴·보존 정비 계획	대통사지 정비(보물 제150호)	공주시 반죽동	3,736	국비, 지방
	공산성 정비(사적 제12호)	공주시 산성동	14,277	국비, 지방
	부소산성 정비(사적 제5호)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6,470	국비, 지방
	궁남지 정비(사적 제335호)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2,423	국비, 지방
	정림사지 복원(사적 제301호)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075	국비, 지방
	부여나성 복원(사적 제58호)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5,304	국비, 지방
	학봉리 도요지 복원(사적 제333호)	공주군 반포면 학봉리	2,833	국비, 지방민자
	공주박물관 이전	공주시 웅진동 일원	17,000	국비, 지방비
관광개발 계획	백제역사 민속촌(개국촌, 왕국촌, 전통민속촌, 산업교역촌, 군사통신촌, 풍속종교촌, 장제묘지촌 등) 연구교육촌(연구교육시설)	부여군 규암면	99,200	국비, 지방공사, 민자
	종합휴양촌, 청소년수련촌	공주시 웅진동, 검상동	55,700	국비, 지방공사, 민자
	관광농업단지	공주시 탄천면	5,000	지방비, 민자
	오토캠프촌	공주시 탄천면	5,000	민자
	기업연수촌	공주시 탄천면	8,000	민자
	노인휴양촌	공주시 이인면	6,500	민자

자료 :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1991.

'종합개발사업'은 대체로 1991년 건설부에서 수립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의거하고 있으며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타당성 조사'(충청남도, 1991. 12)를 거쳐 특정지역 공시 이후인 1993년 12월에 종합개발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나 1997년 현재에는 민자유치의 곤란 등으로 향후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개발사업의 재원은 상당 부분을 민자유치에 의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본 사업의 성패가 결국 민자유치에 의하여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국비 등의 공공투자도 이같은 점에 초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자유치로 계획되고 있는 사업중에서도 처음부터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가령 연구교육촌 조성의 핵심 내용이 되는 대학의 설치 등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공주 및 부여의 단지조성 사업은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첫째는 민자유치에 의하여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둘째는 그 결과 수익성의 우선적 고려가 사업의 구체적 진행내용까지 영향을 크게 미침으로써 백제권 개발이라는 원래 의도가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특히 백제문화의 재현을 위한 고증, 재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 백제문화권 역사유적 발굴·보존 정비

백제문화권 정비사업 중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공주·부여지역에 산재해 있는 백제문화유적 중 47건이 대상으로 되어 있고, 공주지역 22건 중에는 장곡사를 비롯한 청양지역의 문화유적 3건, 그리고 부여의 경우는 보령 성주사지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총사업비 637억원(국비 445, 지방비 192)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1979년부터 1996년까지 4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7건중 25건을 완료하였으며, 22건은 추진중으로 종합진도는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다. 백제문화제의 행사의 개최

대표적 향토축제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백제문

〈표 10〉 백제문화권 역사유적 발굴 보전 정비

(단위 : 백만원)

지 역 별	사 업 량	사 업 비	기투자실적 (79~95년)	96년 실적	97~2001년
계	47건	63,695(44,512)	37,922(26,935)	5,579(3,761)	20,194(13,816)
공 주 지 역	22건	25,341(17,895)	15,566(11,117)	3,504(2,321)	6,271(4,457)
부 여 지 역	25건	38,354(26,617)	22,356(15,818)	2,075(1,440)	13,923(9,357)

주 : ( )내는 국비임

자료 : 충청남도, 도정백서, 1997.

화제는 1997년 현재 제43회를 기록하였고, 양적 규모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운영과 그 내실에 있어서는 그동안 내외로부터 여러 문제점들이 논의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행사의 내실적 발전의 과정상 풀어나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 하겠다.

〈표 11〉 백제문화제 주요 행사의 연혁

행 사 명	개최시기	행 사 내 용
제1회 백제대제 개최	1955년 10월	· 부여 군민이 민간 주도로 부소산성에 제단을 설치하고 백제 삼충신(성충, 흥수, 계백)에 제향. 낙화암 아래 백마강에서 실시
제3회 백제대제 개최	1957년 10월	· 부여 군민이 민간 주도로 성금을 거출하여 삼충사를 건립하고 제향
제10회 백제문화제 개최	1964년 10월	· 제10회 문화제부터 명칭을 종전의 "백제대제"에서 "백제문화제"로 바꿈 · 백제문화제 거행시 박정희 대통령 참석
제12회 백제문화제 개최	1966년 10월	· 공주에서도 백제문화제 거행. 공주와 부여에서 동시에 실시
제20회 백제문화제 개최	1974년 10월	· 제 20회 백제문화제부터 개최 도시가 대전으로 확대되어 대전, 부여, 공주에서 백제문화제가 동시에 개최
제25회 백제문화제 개최	1979년 10월	· 충청남도 백제문화제 개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전을 제외하고 부여와 공주에서 윤번제로 문화제를 거행키로 함 · 공주에서 행사를 먼저 한 후에 부여에서는 소제인 경우 3개분야의 제전만 거행
제26회 백제문화제 개최	1980년 10월	· 윤번제 개최에 따라 부여에서 백제문화제 개최 · 대통령 내외 참석
제38회 백제문화제 개최	1992년 9월	· 부여에서 개최 · 개막식 시간을 처음으로 오후 2시로 함 ·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단위에서 천하장사씨름대회가 야외 행사로 개최
제40회 백제문화제 개최	1994년 10월	· 백제문화제의 범위를 서울까지 확대하여 백제 천도 행사가 처음으로 거행됨 · 위례성 → 웅진 → 사비로 천도행사 거행

행 사 명	개최시기	행 사 내 용
제41회 백제문화제 개최	1995년 10월	· 문화제의 범위를 서울까지 확대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됨 · 공주와 부여에서 윤번제로 개최하기로 함
제42회 백제문화제 개최	1996년 10월	· 부여에서 개최 · 백제 천도 행사는 서울 행사를 생략하고 공주 → 부여 천도행사만 실시하고 천도행렬에 북 300개와 주민 2,500명을 참석시키기로 함 ·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처음으로 참석 ·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국화꽃 잔치를 실시하고 행사기간 동안 백제의상입기 운동을 전개
제43회 백제문화제 개최	1997년 10월	· 공주에서 개최 · 백제문화제 복식, 제례, 행차, 천도행사 등의 고증을 통하여 행사를 추진 · 복식은 지역주민이 백제의상을 입고 참여, 관광객에 판매키로 함 · 각종 행사는 고증을 거쳐 이벤트 행사로 실시

자료 : 충청남도, 백제문화제 행사의 고증과 정리, 1996.

백제문화제의 문제점들은 ① 축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 사항이 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미흡하다, ② '백제문화제'라는 명칭에 걸맞는 이벤트 행사의 개발이 미흡하다, ③ 행사에 따라 그 구체적 전개에 있어서 전문가의 학술적 고증이나 자문이 미흡하다, ④ 행사의 종목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오히려 백제문화제의 특성을 희석 시킨다, ⑤ 백제문화제의 관광자원화 방안이 미흡하다는 등이 지적되고 있다.

3. 백제문화권 관광개발의 문제점

가. 관광객을 유인하는 매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백제문화권은 신라문화권과 달리 현재 남아 있는 문화재가 많지 않은 편이고 분포지역도 공주, 부여, 연기, 청양, 예산, 홍성, 익산, 서울 등 광범위하며, 현재 보존되고 있는 문화재의 규모도 소규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며, 관광객을 백제문화권으로 유인할 있는 매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역사문화 관광의 매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문화자원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 고증을 거쳐 문화재를 정비 또는 복원, 재현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백제문화권은 그 동안의 발굴 문화재가 많으나 신라문화권과 비교하여 널리 알려진 대규모의 문화재가 부족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발굴, 복원, 재현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역사문화자원과 관광개발을 연계한 매력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과거 관람형태로 이루어졌던 역사문화 관광활동이 오늘날의 참여형 관광행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잠재관광객들의 수요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어 날로 방문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역사문화 관광은 수학여행을 비롯한 단체관광객이 많고, 교육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관광활동에 비하여 큰 매력을 가져야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다. 백제문화권 개발에서 백제문화유적의 발굴·복원·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백제역사민속촌, 백제역사연구교육촌 등을 개발하는 것은 많은 역사문화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나. 관광객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어느 지역의 관광지이든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역사문화 관광지는 역사문화자원만으로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으며, 숙박, 음식, 교통, 쇼핑, 오락, 인접 관광시설 등이 갖추어 있을 때 관광객 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다. 백제문화권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도로와 백제문화권내를 연결하는 도로가 매우 열악한 편이며,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숙박, 음식, 쇼핑, 오락시설 등 제반 관광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역사문화 관광의 주요 방문 관광객인 단체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공주·부여에 2급이상 호텔이 전무하고, 단체 수학여행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과 여관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음식점에 있어서도 2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관광식당은 한곳도 없고, 지역 특유의 관광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시설과 관광활동을 위한 오락시설 등은 매우 열악하여 전반적으로 관광객을 위한 제반 모든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에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들도 접근성과 관광시설 이용의 불편성, 관광활동의 단순성 때문에 방문객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 수익성 확보의 곤란으로 민자유치가 어렵다.

역사문화 관광개발은 대규모의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면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재원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자유치에도 곤란을 겪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백제문화권 개발은 투자예산의 대부분이 지방비와 민자를 유치토록 계획되어 있고, 국비 투입계획이 전체의 18%에 불과하여 현재에도 계획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역사문화 관광개발의 매력을 확보하지 못한 개발은 사업성의 불투명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숙박, 음식, 쇼핑, 오락시설 등 관광기반시설에 투자를 회피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접근도로, 문화재 발굴·복원·정비 등을 공공투자를 먼

저 실시하고, 백제역사재현단지와 공주문화관광단지 등 거점 개발지역과 공주·부여 등의 도시지역에 숙박, 음식, 쇼핑, 오락시설 등의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라. 역사문화 관광객의 표적시장 선정과 마케팅 활동이 부족하다.

백제문화권에 장기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광객을 백제문화권의 관광객으로 중점적으로 유치할 것인지, 즉 백제문화권 관광시장을 이용할 주요 고객의 표적시장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백제문화권을 경유하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였기 때문에 주요 고객 유치를 위한 표적시장을 선정하지 못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한 관광마케팅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백제문화권을 주요 방문대상으로 했던 접근성이 양호한 수도권, 역사문화 관광의 주요 관광객인 단체 및 수학여행 학생, 역사문화와 관련된 동호인이나 단체, 백제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그 가운데 특히 일본인 등을 백제문화권의 주요 표적시장으로 선정하고, 이들 잠재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

마. 종합적인 개발 및 관리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역사문화 관광개발은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백제문화권 개발은 역사문화자원의 매력창출, 관광 기반편의시설의 확충, 개발사업의 수익성 확보에 의한 민자유치의 활성화, 주요 유치 관광객 표적시장 선정과 마케팅 활동 등이 상호 종합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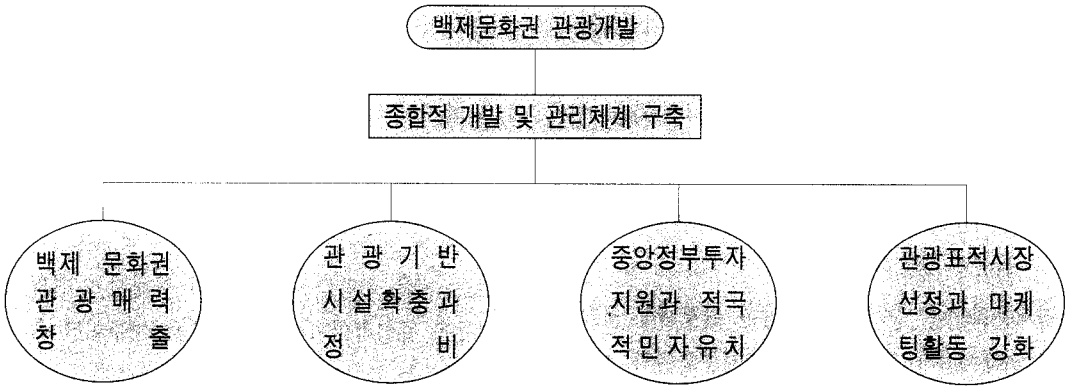
따라서 백제문화권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인들을 종합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향후 관리체계 구축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방정부, 지역주민, 민간기업의 상호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Ⅳ. 백제문화권 관광개발의 기본방향과 개발방안

1. 백제문화권 관광개발의 기본방향

첫째, 백제문화권 관광개발은 종합적인 개발 및 관리체계에 의하여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문화재 발굴·복원·정비, 백제문화권 관광코스 개발, 사회간접자본 및 기반시설 확충, 민자유치를 위한 기반 여건조성과 제도적 정비, 관광표적시장 선정과 마케팅 활동 등을 병행하며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둘째, 차별화된 백제문화권의 매력을 창출한다. 무형의 문화재를 유형화 하는 단계에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과정을 거쳐 복원·정비·재현하고, 이러한 과정에 관광객을 직·간접적으로 참여시키고, 백제문화제에서 실시되고 있는 역사문화 행사들을 관광이벤트화 하고, 백제역사유물·유적들은 기념품화 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그림 2〉 백제문화권 관광개발 접근 개념도

셋째, 백제문화권 연계 교통로와 지역내의 관광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한다. 호남고속철도, 천안-공주-논산간 고속도로, 공주-보령간 고속도로, 공주-서천간고속도로, 금강주운, 공주-대전간 경전철을 건설하고, 백제대로와 지역내 연결도로를 조기에 구축한다. 또한, 공주·부여의 거점도시지역과 백제문화권내 관광지내에 숙박, 음식, 쇼핑, 오락시설 등 관광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개발한다.

넷째, 백제문화권의 자원매력과 사업성, 편리한 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잠재관광객을 대상으로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백제문화권 관광개발의 지역이미지(C.I.)를 확정하여 백제문화권 관광문화를 창출한다.

2. 백제문화권의 특성에 따른 관광자원 매력창출과 상품개발 방안

첫째, 문화유적의 보존과 전시에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의 확충과 기능 강화, 특성화 작업을 추진하여 지역적 특성에 근거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각 지역의 문화유적을 지역에서 보존·관리·전시할 수 있도록 시군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형태로 특화된 1시군 1향토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적 요소를 한 곳에 집중 전시함으로써 유물의 전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고·미술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생활상을 담고 있는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지역귀속감을 느끼고 생활의 역사성을 실감할 수 있는 향토문화유산의 교육장 구실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점에서 연기군의 사설 향토박물관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전문적인 특성과 고유성을 가진 전문박물관의 건립을 촉진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현재 건립되었거나 추진중인 공주민속극박물관, 박동진판소리박물관, 성보박물관, 우남생활문화박물관, 문봉박물관과 같은 테마를 가진 전문박물관의 설립을 위해 기업의 문화투자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

둘째, 도차원에서 새로운 무형문화재를 개발하고 보존·전수하는 작업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 지역 전통예술의 장르별 기능보유자를 선정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고 기능계승을 위한 전수공간을 마련한다. 공연과 전시 지원 및 포상제도를 활성화 한다. 또한 음식조리, 복식, 가구나 기물의 제작 및 수리, 공예 등 전통적인 기능을 보유한 장인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 솜씨가 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이들의 활동이 문화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우수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부가가치의 척도가 되는 우수한 디자인이 접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현대감각을 살린 디자인에 대한 연구·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각종 문양 색채 조형 등을 소재로 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디자인을 선정·시상함은 물론 수상한 디자인은 문화상품 디자인 책자로 발간하여 도내 문화상품 개발자에게 배포, 고부가가치의 상품화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역내의 문화상품 또는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 상품개발에 필요한 투자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영세성을 고려할 때 시범 문화상품 제작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도내의 박물관 등을 활용한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지원 체계의 구축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도 단위 우수 문화상품전을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관심과 호응도를 높이며,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전람회로 발전시킨다. 문화상품 관련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판매시설과 유통망, 그리고 홍보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 차원의 문화상품 전시 판매장인 충남문화상품 상설전시관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넷째, 충남의 향토축제는 행사의 기획이나 홍보의 전문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토축제의 관광자원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축제의 개성을 살리고 이것을 관광이벤트화 해야 한다. 연례적으로 비슷한 내용과 수준의 행사종목으로 개최하는 것을 지양하여 축제명, 개최시기, 축제행사 내용 등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재검토 조정하고, 행사주체도 이제까지의 관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에 의해 축제가 기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축제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축제위원회를 민간법인으로 독립시켜 상설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의 참여와 축제기획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향토문화축제의 전국화·세계화 방안을 강구한다.

3.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상품의 개발 방안

첫째, 역사문화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유적의 특성이나 접근의 연계성을 고려한 문화유산의 패키지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관광루트와 문화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경관이나 문화재관람에 그치는 단순 관광패턴에서 체험적 문화교육관광으로 관광패턴을 전환시켜 체재형 관광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권역별 특성에 따라 그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의 유적지 정비 등을 통해 충남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한 문화유적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특성이나 테마에 따라 문화유산을 패키지로 묶고 그에 따른 다양한 테마투어코스를 개발해야 한다. 단순 문화재 관람이나 자연경관 관람에서 체험적 문화교육관광으로 관광패턴을 전환시킨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문화관광루트의 개발을 위해 문화관광코스 개발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셋째,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제2의 해석과 연출작업을 통해 역사문화 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창출한다. 단순히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의 관광이 아니라 철저한 고증작업을 거쳐 그 유적지만이 갖는 고유한 속성을 살릴수 있는 공간배치 등을 통해 관광자원으로서의 시장성을 높인다. 또한 외국어 특히 영어와 한자를 포함한 안내판의 정비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역사 문화관광자원 해설시스템의 구축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첨단 입체영상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재 복원기법을 활용하여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 등을 간접체험하도록 만드는 입체영상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관을 설치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역사적 상황을 재현하는 등의 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관광코스 개발시 공주·부여 이외 지역의 백제유적도 관광코스로 개발하여야 한다. 백제문화권 문화재 정비사업에도 백제 도성이었던 공주·부여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청양, 예산, 홍성, 연기, 논산 등 인근 지역의 일부 문화재가 그 대상에 포함되어 관광코스로 상품화 되는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4. 백제문화권 개발 자원의 확대와 연계자원의 활용방안

첫째, 백제문화권에 소재한 타 시기의 유적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즉 백제 이전의 유적 혹은 백제 이후의 주요 유적중에서 적합한 문화유적자원을 백제문화권 개발의 일환으로 중점 개발하는 것이다. 가령 백제 이전의 선사유적으로서 금강변에 있는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이나 청동기시대의 우리나라 대표적 유적의 하나인 부여 송국리유적, 혹은 조선시대의 분청사기 도요지인 공주 학봉리 요지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는 이미 백제문화권 사업의 범주안에 들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들 유적은 단순한 학술적 자료로서의

중요성 이상의, 관광 교육자원으로서의 개발의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중점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공주·부여의 인근지역에 있는 백제유적을 중점 개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유적의 산포성(散布性)이라는 개발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도로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을 예상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점 개발 대상에 넣을 수 있는 유적으로서 예산의 임존성 혹은 서산 마애불 등과 이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유적이라 하더라도 개발 가능성을 여러모로 모색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서 논산의 경우는 공주·부여를 제외하면 가장 풍부한 백제고분의 분포지로서, 가령 백제고분공원과 같은 유적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유적의 매장상태, 교통 등의 지리적 입지, 주변 경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백제고분 집중지역을 발굴 조사한 후 이를 고분공원으로 조성하고 출토된 유물을 현지에서 관리함으로써 현장감을 높이는 것이다. 백제고분 공원은 그 한 예를 든 것이지만, 다른 유적의 경우도 그 개발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백제문화 자료의 상대적 빈약성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유적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여에서의 백제 금동향로의 발굴에서 보는 것처럼 지하 매장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계속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백제문화권 개발의 자원을 확대하는 또 하나의 방편은 개발지역의 환경과 경관을 개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자원은 금강이다. 경주의 경우 문화유적의 집중 등 개발의 조건상 백제권 보다 좋은 점들이 있지만, 금강이야말로 경주가 갖지 못한 천연의 귀중한 개발자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련한 금강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되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

백제문화권과 관련한 금강의 중요성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번째는 금강의 역사성이다. 금강은 백제시대 서울과 지방, 그리고 백제를 국제적으로 연결시킨 가장 중요한 교통로 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의의가 매우 중요하다. 두번째는 백제문화권의 가장 중요한 유적은 금강을 그 배후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주의 공산성이나, 무령왕릉, 곰나루, 부여의 부소산성이나 구드레 등은 금강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다. 세번째는 백제문화권 개발에 있어서 금강의 경관은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은 계속 파괴되어가고 있다. 최근 수 년동안 공산성과 왕릉 주변 금강에서는 모래채취가 지속적으로 허용됨으로써 백제문화권 개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윤용혁, 1995). 따라서 이를 방지하여 금강주운개발을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백제문화권 개발 재원확보와 투자유도 방안

백제문화권 개발을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은 크게 역사문화유적의 발굴·복원·정비 등에 소요되

는 문화재부문의 투자부문과 관광기반시설의 투자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문화재부문의 투자는 과거에 공공부문에서 투자 되어왔던 것과 같이 역할분담을 그대로 두되 문예진흥기금의 배분을 현행의 신청방식에서 도가 능동적으로 특정 예술인 및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충남의 특정 문화부문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며, 연말 지원성과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일년 단위가 아닌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용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도 단위의 문예진흥기금으로는 시군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고 지역적 특성을 살릴 지원도 힘들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군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육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공부문의 부족한 문화진흥재원을 보조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활발한 문화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1995년도에 민간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액은 총 988건에 926억원으로 과거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이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이미지를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지역의 농협, 수협, 대한상공회의소, 금융권 및 지역 연고기업들로 하여금 지역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의 문화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다. 그 외에도 문예진흥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원조성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령 문화재 관람료 부가모금, 기업체 제휴 문화사업, 문화가꾸기 통장, 문화신용카드의 발급 등 재원조성의 다각화를 시도하며, 개인이나 법인의 문화재단 설립을 유도하여 문화진흥재원을 확충한다.

관광기반시설 투자부문 가운데 관광단지부지조성, 접근도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공공부문에서 담당하고, 숙박, 상업, 음식, 오락시설 등은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역사문화자원의 매력창출과 지역 내외를 연결하는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6. 백제문화관광 표적시장의 선정과 관광마케팅 활동 전개

지금까지 백제문화권을 방문하는 주요 관광객은 내국인은 학생수학여행과 일반단체, 수도권과 대전권 지역의 가족단위 경유형 관광객, 외국인은 일본인 단체 관광객 등이다. 이는 이들 방문객들이 백제문화권의 주요 표적시장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백제문화권의 관광개발을 위해는 위에서 시사해 주고 있는 관광시장을 대상으로 표적시장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즉, 표적시장별 관광대상 고객의 욕구를 분석하여 표적시장을 세분화 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점 홍보와 정보제공을 하는 관광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행사에 역사문화 관광코스를 만들어 단체 관광상품 제공·소개, 관광안내해설 시스템과 역사문화 관광 D/B구축, 역사문화 관광안내소 운영, 역사문화 이벤트 개최, 각종 홍보사업 등을 실시한다.

V. 나가는 글

역사문화자원의 관광개발은 문화유산의 원형훼손과 고유성의 파괴를 방지하고 전통문화가 지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순히 문화재 보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 의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연결 도로망의 정비, 제반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에 크나큰 효과가 기대되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백제문화권이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계획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온 추진내용을 검토분석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백제문화권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의 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백제문화권 개발은 종합적인 개발 및 관리체계에 의하여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차별화된 백제문화권의 매력을 창출한다. 셋째, 백제문화권 연계 교통로와 지역내의 관광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한다. 넷째, 백제문화권의 자원매력과 사업성, 편리한 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잠재관광객을 대상으로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마케팅활동을 강화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방향에 따른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이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앞으로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열린충남

참 고 문 헌

교통개발연구원, 역사문화 관광코스의 개발방안, 1994.
문화정책개발원,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지표 조사연구, 1995
문화체육부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예술통계, 1995.
박석희, 신관광자원론, 일신사, 1997.
안종윤, 관광학개론, 창문각, 1981.
여홍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열린충남 제2권 제4호 통권6호, 1996. 겨울.
윤용혁, "백제문화권 개발과 충남발전", 21세기를 여는 충남지역의 발전방향, 충남발전연구원 개원심포지엄, 1995.
충청남도, 공주 · 부여권 관광개발기본계획, 1996.
_____, 도정백서, 1997.
_____, 문화재목록, 1997.
_____,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1991.
_____, 백제문화제 행사의 고증과 정리, 1996.
_____,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안), 1997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1996.
_____, 외래 관광객 여론조사, 1996.
_____, 전국관광 장기종합개발계획, 198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연감, 1996.
_____, 문화관광에 관한 기초연구, 1989.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 · 체육 · 관광의 연계방안, 1995.
_____, 향토축제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1994.